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 개발 연구

권진혁¹ · 박성운² · 박병주³ · 홍승민⁴ · 김아리⁵ · 오현주⁶ · 이준희^{7,*}

¹경희권한의원 원장, ²편안한경희한의원 원장, ³서울경희한의원 원장, ⁴열한의원 원장, ⁵아이누리한의원 원장, ⁶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임상교수, ⁷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수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the Sasang Constitutional Health Level of Cancer Survivors

Jin-Hyeok Kwon¹ · Sung-Woon Park² · Byung-Joo Park³ · Seung-Min Hong⁴ ·
A-Ri Kim⁵ · Hyunjoo Oh⁶ · Jun-Hee Lee^{7,*}

¹Kyung Hee Kwon Korean Medicine Clinic, ²Pyunhanhan Kyunghee Korean Medicine Clinic,
³Seoul Kyunghee Korean Medicine Clinic, ⁴El Korean Medicine Clinic, ⁵Inuri Korean Medicine Clinic,
⁶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⁷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criteria for assessing the health level of cancer survivors through patient reported outcome based on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atology.

Methods

As a result of the researchers' meetings and the first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the constitutional health level assessment items that would be common to all Sasang constitutions were extracted, and constitutional health level assessment items for cancer survivors were selected. A second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ortance and weighting of these items for each constitution.

Results & Conclusions

For soeumin, the importance ranking and calculated weight were as follows: 'I had sweats even when I was not hot or exercising.(1st, 4.09)', 'I had night sweats while sleeping(2nd, 3.94)', 'I lost weight.(3rd, 3.75)', etc.

For soyangin, as follows: 'I had night sweats while sleeping.(1st, 3.08)', 'I had vomiting.(2nd, 3.02)', 'I felt hot flashes in the afternoon or at night. (3rd, 2.73)', etc.

For taemin, as follows: 'I was out of breath.(1st, 3.48)', 'My heart was pounding for no reason.(2nd, 3.45)', 'My body was swollen.(3rd, 3.22)', etc.

For taeyangins, as follows: 'I couldn't urinate well.(1st, 4.49)', 'I vomited(2nd, 4.44)', 'My upper abdomen were hard.(3rd, 3.14)', etc. Based on the results, we developed a draft of a questionnaire to assess the Sasang constitutional health level of cancer survivors, weighted for each item.

Key Words : Cancer Survivor,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PROM), Health Level Assessment, Sasang Constitution

Received 14, December 2023 Revised 14, December 2023 Accepted 20, December 2023

Corresponding author: Junhee L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23,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Tel: +82 2 958 9280, Fax: +82 2 958 9234, C.P: +82 10 5412 2742, E-mail: ssjh@khu.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緒論

우리나라의 2020년 암발생자수는 총 247,952명(인구 10만명당 482.9명)이고 암유병자수는 총 2,276,792명(인구 10만명당 4433명, 전체인구 대비 4.4%)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2}. 특히 2016-2020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1.5%로 10명 중 7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2001-2005년 진단된 암환자와 비교하여 17.4%p, 2006-2010년 진단된 암환자와 비교하여 6.0%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 치료와 생존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생존자가 겪는 신체·정신·사회 등 복합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함을 의미한다.

미국국립암연구소(NCI)에서는 암생존자(cancer survivor)를 ‘암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삶의 균형이 유지되는 시점까지’로 정의하였고³, 우리나라 국가암정보센터는 ‘암 진단 후 완치 목적의 주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를 마친 암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암생존자 관리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domain)이 있다. (1)신규/재발 암에 대한 감시(Cancer surveillance and screening) (2)암치료 후유증 모니터링(Late effects/side effects management) (3)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변화 및 위험도 감소(Risk reduction and cancer prevention) (4)심리사회적 지원(Psychosocial functioning)^{4,5}. 이 중 암환자의 건강모니터링과 위험요인에 따른 통합적 헬스케어는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암재발 및 사망률 감소에 필수적인데 2, 여기에 사상체질의학이 강점이 있다.

동무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질병의 경중(輕重)을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명맥(命脈)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고⁶, 이러한 관점에서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는 사상인의 보명지주(保命之主)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상체질병증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체질별 건강 수준’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사상체질병증은 2013년

-2015년에 걸쳐 발표된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진단준거 확립, 분류체계 합의, 표준중후와 진단알고리즘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후속 연구로 각 체질별 소증진단평가지표와 병증진단평가지표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 각각에 대한 진단평가도구들이 개발되었고⁷⁻¹⁰,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2022년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반영되었다¹¹.

이에 본 연구진은 2023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암생존자의 한의·디지털 융합 재활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암생존자 등 중증 질환에 대한 1차 양방치료를 겪고 난 환자를 대상으로 체질별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상체질건강수준 평가설문지(SSH-Q)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경로』의 『부록 자료01. 소증설문지』¹²에 수록된 문항들을 기초자료로 연구자 회의를 통해 후보 지표(candidate items)를 추출하였고, 전국 한의과대학 전임교수와 사상의학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사상체질의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 1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표를 확정하고, 2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을 개발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및 節次

1. 체질건강수준 평가항목 추출 및 평가

1) 사상체질건강수준 평가 후보항목 추출

연구자 회의를 통해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경로』의 『부록 자료01. 소증설문지』¹²에 수록된 131개 문항들(수면, 소화, 구진/구갈/음수, 소변, 대변, 한출, 한열, 성정, 두, 면, 안/이/비/구, 인후, 흉협, 피부, 호흡, 사지, 전신 영역)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

준 평가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후보 항목들(candidate items)을 도출하였다.

2) 1차 전문가그룹 자문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소속된 사상체질의학과 전임교수 19인과 사상의학 임상 경력 10년 이상의 사상체질의학회의 임원 10인으로 구성된 총 29명의 전문가 자문단에게 상기 과정을 통해 도출된 후보 항목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단에 보낸 설문지¹⁾는 구글폼으로 작성하였고, 1개의 배제 척도(“해당 증상이 있어도 OO인의 건강 수준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와 5개의 포함 척도(“해당 증상이 있으면 OO인의 건강수준이 {미미하게 나쁘다./ 약간(mild) 나쁘다./ 어느 정도(moderate) 나쁘다./ 상당히(severe) 나쁘다./ 매우(critical)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개의 기권 척도(“판단이 어렵다”)로 응답 받았다. 총 29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조사 진행하였고 23명이 회신하였고(응답율 79.3%),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세트(core set)를 확보하였다.

2. 암생존자 대상 체질건강수준 평가항목 선정 및 중요도 평가

1) 암생존자 대상 사상체질건강수준 평가항목 선정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세트(core set)를 대상으로 연구자 회의를

1) 보건복지부 지원 연구과제 “암생존자의 한의·디지털 융합 재활 기술 개발”을 수행하면서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문을 의뢰드립니다.

1. 자문 목적 : 일반인 대상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 기준 개발
2. 활용 :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일반인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체질별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한의진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함.

통해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selected items)을 선정하였다.

2) 2차 전문가그룹 자문

1차 전문가그룹 자문에서 응답을 해 준 총 23명의 전문가 자문단에게 상기 과정을 통해 선정된 항목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2차 전문가 자문단에 보낸 설문지는 엑셀로 작성하였고, 모든 항목들을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다²⁾.

첫째 행에서는 평가 목적, 평가 기준, 참고사항을 기재하였고, 첫째 열에는 “지난 1주 동안”이라는 지시어를 기재하고 선정된 53개 항목을 배치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둘째 열에는 “OO인 암생존자의 체질에 따른 건강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해당 증상이 있어도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지시어를 기재하고 체크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 다섯 개의 열에는 “OO인 암생존자의 체질에 따른 건강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해당 증상이 있으면 건강수준이 {미미하게(slight)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약간(mild)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moderate)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상당히(severe)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매우(critical) 나쁘다’고 할 수 있다.”라는 중요

2) 지난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자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작업으로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합니다.

1. 암생존자는 “암 진단 후 항암치료,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완료한 환자”를 의미합니다. 단, 기타 중증질환에 대한 1차적인 양방치료를 완료한 환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한 양방치료를 겪고 난 상태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암 등 질환이 아닌 체질병증의 관점에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질병증이 아닌 특정 질환을 시사하는 항목들은 제외하였습니다.)
3. 다음 항목들은 '비대면(온라인) 환자 자기보고식 평가 내용(정기적으로 평가)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문을 의뢰드립니다.

- 1) 자문 목적 : 암생존자 대상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 개발
- 2) 활용 : 암생존자 등 중증 질환에 대한 1차 양방치료를 겪고 난 환자를 대상으로 체질별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한의진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함.

도 평가 척도를 각각 기재하고 체크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 열에는 “해당 증상이 중등도 이상 있을 경우 체질병증의 고위험증상(Red Flag Sing)이라고 판단되면 체크 바랍니다.” 라는 지시어를 기재하고 체크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맨 아래에는 “상기 증상 이외에 추가가 필요한 증상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고, 아울러 상기 질문과 같이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지시어를 기재하고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23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조사 진행하였고 21명이 회신하였다(응답율 91.3%).

2) 가중치 산정(item weighting)

(1) 가중치 산출 방법

중요도 응답 결과를 통한 가중치 산출에는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들⁷⁻¹⁰⁾에서는 가중치 산출 방법으로 각 후보 항목(i)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표준점수(Z_i)를 산출하고 이를 가중치($s W_i$)로 이용하였는데³⁾, 권 등⁹⁾의 연구에서 이러한 방식은 주어진 자료의 응답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하였다⁴⁾. 이는 각 항목내 (intra-item) 평가자간(inter-rater) 응답의 분산은 새로운 응답의 대표값에서의 위치(표준점수)를 결정하는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응답의 대표값 계산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균

$$3) s W_i = 100 \times \frac{\bar{Z}_i}{\sum_{i=1}^K Z_i}, s W_i : \text{표준점수 } Z_i \text{를 이용해}$$

계산한 가중치 $Z_i = \frac{x_i}{s_i}$, Z_i (각후보 항목 i 의 중요도에 관한 표준점수): 후보항목 i 에 대한 전문가 K_i 명의 중요도 점수 평균(\bar{x}_i)을 표준편차(s_i)로 나눈 값

$$\bar{x}_i = \frac{1}{K_i} \sum_{k=1}^{K_i} x_{ik}, s_i = \sqrt{\frac{1}{K_i - 1} \sum_{k=1}^{K_i} (x_{ik} - \bar{x}_i)^2}$$

x_{ik} : 각 후보항목 i ($i = 1, 2, \dots, I$)에 대한 전문가 k ($k = 1, 2, \dots, K$)의 중요도 평가값

- 4) 각 항목별 평균값을 각 항목별 표준편차로 나누는 것은 평가자간 응답 분포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함이었으나, 평균값이라는 자료의 대표값을 표준편차라는 자료의 특성으로 나눔으로써 해당 항목의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 5) 한편 각 항목간(inter-item) 평가자내(inter-rater) 응답 분포의 차이는 항목들의 일관성에 종속적이다.

값을 각 항목의 대표값 곧 중요도로 정하여 이를 가중치 산출에 이용하였다⁶⁾.

(2) 코딩 방법

연구자 회의에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미미하게 (slight) 나쁘다’, ‘약간(mild) 나쁘다’, ‘어느 정도(moderate) 나쁘다’, ‘상당히(severe) 나쁘다’, ‘매우(critical) 나쁘다’의 코딩 값을 각각 ‘0, 1, 2, 3, 4, 5’ 방식의 같은 간격 (interval=1)으로 배정하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약간(mild) 나쁘다’, ‘어느 정도(moderate) 나쁘다’, ‘상당히(severe) 나쁘다’, ‘매우(critical) 나쁘다’의 4개 변수는 사상체질병증의 경증(輕證), 중증(重證), 협증(險證), 위증(危證)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인데,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 역증(逆證)의 중증도를 순증(順證)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⁷⁾⁸⁾과, 체질병증단계의 중증도(severity)를 배중(倍重), 배험(倍險)이라는 표현⁹⁾을 쓴 것을 고려할 때 경증협위의 각 단계별 점수는 최소한 이전 단계의 2배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암 생존자를 관리하고 재발 위험도를 스크리닝하기 위한 검사 도구의 목적상 중증을 시사하는 항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¹⁰⁾. 이상

$$6) W_i = 100 \times \frac{\bar{x}_i}{\sum_{i=1}^I x_i}, W_i : \text{평균점수 } \bar{x}_i \text{를 이용해 계산한}$$

$$\text{가중치 } \bar{x}_i = \frac{1}{K_i} \sum_{k=1}^{K_i} x_{ik}, x_{ik} : \text{각 후보 항목}$$

i ($i = 1, 2, \dots, I$)에 대한 전문가 k ($k = 1, 2, \dots, K$)의 중요도 평가값

- 7)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35> “胃家實脾約二病，如陰證之太陰少陰病，虛實證狀顯然不同，自太陽病表證因在時，已爲兩路分岐，元不相合。”
- 8) 「少陰人泛論」 <8-8> “太陽太陰之病，病勢緩，而能曠日持久，故變證多也，陽明少陰之病，病勢急，而不能曠日持久，故變證少也。蓋陽明少陰病，過一日而至二日，則不可不用藥也，太陽太陰病，過四日而至五日，則不可不用藥也。”
- 9)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10-17> “上消自爲重證，而中消倍重於上消，中消自爲險證，而下消倍險於中消。”
- 10) Sensitivity is usually increased at the expense of specificity when the disease is serious and curable in its preclinical phase. (Cheryl Herman, MD. What Makes a Screening Exam “good”? AMA Journal of Ethics, 2006;8(1):34-37)

의 이유들을 종합하여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0'로, '미미하게(slight) 나쁘다'는 '0.5'로, '약간(mild) 나쁘다'는 '1'로, '어느 정도(moderate) 나쁘다'는 '2'로, '상당히(severe) 나쁘다'는 '4'로, '매우(critical) 나쁘다'는 '8'로 코딩하기로 결정하였다.

III. 結果

1. 암생존자 대상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항목 선정

체질건강수준 평가도구에 활용할 지표들(items)을 추출하기 위해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경로』의 『부록 자료01. 소증설문지』¹²에 수록된 131개 문항들을 검토하였다. 수면 영역 6문항, 소화 영역 10문항, 구진/구갈/음수 영역 11문항, 소변 영역 7문항, 대변 영역 16문항, 한출 영역 9문항, 한열 영역 11문항, 성정 영역 8문항, 두 영역 2문항, 먼 영역 6문항, 안/이/비/구 영역 8문항, 인후 영역 4문항, 흉협 영역 4문항, 피부 영역 11문항, 호흡 영역 2문항, 사지 영역 9문항, 전신 영역 7문항, 총 17개 영역 131개 문항 중에서 체질건강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지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를 기준¹¹⁾으로 한의사의 대면 진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항목, 자기 평가가 어려운 항목, 특정 체질만 의미가 있는 항목 등을 제외하고, 문항수가 적은 영역은 인접 영역으로 통합하여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총 12개 영역 75개 후보항목(candidate items)을 도출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 실시결과, 세 체질 이상에 걸쳐 각각 응답자 한 명 이상이 배제 척도에 체크한 경우, 두 체질에 걸쳐 각각 응답자 두 명 이상이 배제 척도에 체크한 경우, '어느 정도(moderate) 나쁘다(2점)'를 기준

으로 2점 이상의 응답자 수와 2점 이하의 응답자 수의 비율이 거의 동일한 경우는 후보 항목에서 삭제¹²⁾하여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세트(core set) 58개 문항을 확보하였다¹³⁾.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 회의를 통해 비대면(온라인) 환자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항목, 체질병증이 아닌 특정 질환을 강하게 시사하는 항목 등을 제외¹⁴⁾하고, 암생존자에게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구토가 있었다.', '갈증이 나지만 물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다.', '오후나 야간에 열감을 느꼈다.', '입안이 험했다(구내염).'¹⁵⁾를 추가하고,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하고, 응답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한열, 기타, 심리상태' 영역을 '기타' 영역으로 통합하고 항목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총 10개 영역 53개 항목(selected items)을 선정하였다(Table 1).

2. 2차 전문가그룹 자문 결과

1) 평가항목별 중요도 및 가중치

2차 전문가그룹 자문 응답자들의 각 항목별 평균점수를 해당 항목의 중요도 값으로 계산하여 순위를 매기고, 항목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Table 2)

체질건강수준 평가항목의 소음인에게 있어서 중요도 순위(Rank)와 계산된 가중치(Weight)는 '덥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은땀이 났다.(1위, 4.09)', '자는 동안 식은땀이 났다.(2위, 3.94)', '체중이 감소하였다.(3

11)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경로』의 <부록 자료01. 소증 설문지>의 항목들은 건강수준 평가(assessment)가 목적이 아니라, 사상체질병증 진단(diagnosis) 또는 분류(classification)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체질건강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1차 기준으로 삼았다.

12) 총 17개 문항으로 Table 1의 후보 항목(Candidate items) 열에 [삭제]라는 꼬리표를 달고, 선정 항목(Selected items) 열에서 대각선으로 표시했다.

13) Table 1의 후보 항목(Candidate items) 열에서 [삭제] 꼬리표가 달린 항목을 제거하면 총 12개 영역 5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기준> 핵심 세트(core set)가 된다.

14) 총 9개 문항으로 Table 1의 선정 항목(Selected items) 열에 (제외)라고 표시하였다.

15) 총 4개 문항으로 Table 1의 후보 항목(Candidate items) 열에 대각선으로 표시하고, 선정 항목 열에 (추가)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위, 3.75), '구토가 있었다.(4위, 3.34)', '명치가 뭉쳐 단단하였다.(5위, 3.11)'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대변을 매일 보지 못했다.(53위, 0.47)'가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양인에게 있어서 중요도 순위와 계산된 가중치는 '자는 동안 식은땀이 났다.(1위, 3.08)', '구토가 있었다.(2위, 3.02)', '오후나 야간에 열감을 느꼈다.(3위, 2.73)', '대변을 매일 보지 못했다.(4위, 2.69)', '체중이 감소하였다.(5위, 2.53)'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소변을 자주 봤다.(53위, 1.04)'가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음인에게 있어서 중요도 순위와 계산된 가중치는 '숨이 찼다.(1위, 3.48)',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2위, 3.45)', '몸이 부었다.(3위, 3.22)',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다.(4위, 2.96)', '불안했다.(5위, 2.68)'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머리와 얼굴로 열이 올랐다.(53위, 1.13)'가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인에게 있어서 중요도 순위와 계산된 가중치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1위, 4.49)', '구토가 있었다.(2위, 4.44)', '명치가 뭉쳐 단단하였다.(3위, 3.14)',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움이 있었다.(4위, 3.11)',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다.(5위, 3.08)'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소변을 자주 봤다.(53위, 0.36)'가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체질병증의 고위험증상(Red Flag Sign) 항목 별 응답자수

"해당 증상이 증등도 이상 있을 경우 체질병증의 고위험증상(Red Flag Sign)이라고 판단되면 체크 바랍니다."라는 지시어에 따라 고위험증상에 체크한 응답자는 총 10명이었고, 각 항목별 응답자 수는 Table 3과 같았다.

소음인에서 해당 증상이 증등도 이상 있을 경우 고위험증상이라고 가장 다수가 응답한 항목은 '덜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은땀이 났다.'로 8명이 체크하였고, '자는 동안 식은땀이 났다.(7명)', '체중이 감소

하였다.(6명)', '불안했다(불안감).(4명)',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4명)', '숨이 찼다(4명)', '몸이 부었다(4명)'순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총 34개였고, 2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23개, 3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15개이었다.

소양인에서 가장 다수가 응답한 항목은 '체중이 감소하였다.', '구토가 있었다.', '대변을 매일 보지 못했다.'가 모두 5명이 체크하였고, '대변을 볼 때 힘이 들었다.(4명)', '이유없이 가슴이 답답했다.(4명)', '몸이 부었다.(4명)'순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총 39개였고, 2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20개, 3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12개이었다.

태음인에서 가장 다수가 응답한 항목은 '이유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로 8명이 체크하였고, '숨이 찼다.(7명)', '체중이 감소하였다.(6명)',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많았다.(4명)', '몸이 부었다.(4명)', '우울했다(우울감).(4명)',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다.(4명)'순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총 43개였고, 2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22개, 3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10개이었다.

태양인에서 가장 다수가 응답한 항목은 '구토가 있었다.'로 9명이 체크하였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7명)', '체중이 감소하였다.(4명)', '평소보다 수면시간이 줄었다.(3명)',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움이 있었다.(3명)', '명치가 뭉쳐 단단하였다.(3명)', '이유없이 가슴이 답답했다.(3명)',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다.(3명)'순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총 22개였고, 2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13개, 3명 이상의 응답자가 체크한 문항은 8개이었다.

Table 1. Selecting Constitutional Health Level Assessment Items

First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questions		Second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questions	
영역	Candidate items	영역	Selected items
체중 체형	1. 체중이 과체중 이상(BMI 기준)으로 증가한다. [삭제]	체중	1. 체중이 감소하였다.
	2. 체중이 저체중 이하(BMI 기준)로 감소한다.		(제외)
	3. 배가 나온다. (정상 복부둘레 이상으로 증가)		(제외)
	4. 팔다리기가 기늘어진다. (팔다리 근육량 감소)		
	5. 수면 시간이 이전보다 줄었다.		2. 평소보다 수면시간이 줄었다.
수면	6.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면	3.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7. 수면의 질이 나쁘다. (깊은 잠을 못잔다, 자는 도중에 자주 깬다)		4. 깊은 잠을 못잔다.
식욕	8.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삭제]	식욕	5.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9. 식욕이 떨어진다.		
	10. 식사량이 보통보다 많다. [삭제]		
식사량	11. 식사량이 보통보다 적다.	식사량	6.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었다.
	12. 상복부가 더부룩하거나 답답하다.		7. 상복부가 더부룩하거나 답답하였다.
	13. 속쓰림이 있다.		8. 속쓰림이 있었다.
소화 상태	14. 속이 메스거리거나 울렁거린다.	소화 상태	9.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움이 있었다.
	15. 상복부에 통증이 있다.		10. 구토가 있었다. (추가)
	16. 명치가 뭉쳐 단단하다.		11. 상복부에 통증이 있었다.
	17. 입이 자주 마른다.		12. 명치가 뭉쳐 단단하였다.
	18. 입맛이 쓰다.		13. 입마름이 있었다.
구강 건조감	19. 갈증을 자주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신다.	구강 건조감	(제외)
	20. 갈증을 자주 느끼지만 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		14. 갈증이 나지만 물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다. (추가)
	21.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15.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셨다.
대변	22. 대변이 굳다(단단하다).	대변	16.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해졌다.
	23. 대변을 하루에 여러 번 본다.		20. 대변이 무르거나 물 같은 변을 봤다.
			19. 대변이 굳었다(딱딱하다).
			18. 대변을 하루에 여러 번 봤다.

First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questions		Second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questions	
영역	Candidate items	영역	Selected items
영역	24. 대변을 매일 보지 못한다.	소변	17. 대변을 매일 보지 못했다.
	25. 대변 횟수와 성상이 불규칙하다.		21. 대변 횟수나 성상이 불규칙했다.
	26. 대변이 시원하지 않다. (잔변감이 있다)		25. 대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을 느꼈다.
	27. 배가 자주 아프다.		22. 배가 자주 아팠다.
	28.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다. (복부 팽만감이 있다)		23.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다(복부 팽만감), (제외)
	29.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24. 대변을 볼 때 힘이 들었다.
	30. 대변을 볼 때 통증을 느낀다.		26. 소변을 자주 봤다.
	31. 소변을 남들보다 자주 본다. (소변 횟수가 많다)		27.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적었다.
	32. 소변을 남들보다 적게 본다. (소변 횟수가 적다) [삭제]		28.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많았다.
	33.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적다.		30. 소변색이 진했다.
34.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많다.	29.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		
35. 소변색이 진하다.	32.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시원하지 않았다.		
36.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31. 소변을 참기 어려웠다.		
37.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잔뇨감이 있다.	(제외)		
38. 소변을 참기 어렵다.			
39.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			
40. 날이 덥거나 운동을 하면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난다. [삭제]			
41. 날이 덥거나 운동을 해도 땀이 나지 않는다. [삭제]			
42. 날이 덥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땀이 난다. (식은땀이 난다)			
43. 차는 도중에 땀이 난다.	33. 덥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은땀이 났다.		
44. 두면부와 상체로 땀이 많이 난다. [삭제]	34. 차는 동안 식은땀이 났다.		
45. 손발에 땀이 많다. [삭제]	(제외)		
46. 땀습이 있다.			
47. 더위에 예민하다. (더위를 참기 어렵다) [삭제]			
48. 추위에 예민하다. (추위를 참기 어렵다) [삭제]			
49. 전신 열감이 있다. (몸에 열이 많다) [삭제]			
50. 전신 냉감이 있다. (몸이 차다)	36. 온몸에 한기를 느꼈다.		
영역		한출	
		기타	

First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questions		Second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questions	
영역	Candidate items	영역	Selected items
	51. 두면부로 열이 오른다.		35. 머리와 얼굴로 열이 올랐다.
	52.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 [삭제]		37. 오후나 야간에 열감을 느꼈다. (추가)
	53. 얼굴색이 창백하다. [삭제]		
	54. 손발이 차다.		38. 손발이 차다.
	55. 손발이 뜨겁다. (손발에 열감이 있다) [삭제]		
	56. 배가 차다. [삭제]		
	57. 등이 시리다. [삭제]		
	58. 두통이 자주 있다.		45. 두통이 있었다.
	59. 어지럼증이 자주 있다.		46. 어지러웠다.
	60. 목에 이물감이 있다. (매해기)		49. 입안이 험었다(구내염). (추가)
	61. 가슴이 이유없이 답답하다.		50. 목에 이물감이 있었다.
	62. 가슴이 이유없이 두근거린다.		42. 이유없이 가슴이 답답했다.
	63. 숨이 차다.		43. 이유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64. 피부 가려움증이 있다.		44. 숨이 차다
기타	65. 피부에 발진, 두드러기가 생긴다.		40. 피부가 가려웠다.
	66.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붓는다.		41.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겼다. (제외)
	67. 저녁에 다리가 붓는다.		47. 몸이 부었다.
	68. 손 또는 발이 저리다.		39. 손발이 저렸다.
	69. 무리를 하지 않아도 근육통이 자주 생긴다. [삭제]		
	70. 쥐가 잘 난다.		48. 쥐가 났다.
	71. 피로감이 심하다.		53.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다.
	72. 불안감을 쉽게 느낀다.		51. 불안했다 (불안감)
심리	73.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		52. 우울했다 (우울감)
상태	74. 화를 잘 낸다.		(제외)
	75. 공포감(두려움)을 자주 느낀다.		(제외)

Table 2. Response Averages, Weights, and Rankings per Item for Each of the Four Constitutions

영역	Standard items	Soecumin			Soyangin			Taecumin			Taeyangin		
		Mean±SD	W*	R†	Mean±SD	W	R	Mean ± SD	W	R	Mean ± SD	W	R
체증	1. 체증이 감소하였다.	4.19 ± 2.66	3.75	3	2.95 ± 2.29	2.53	5	2.52 ± 2.59	2.49	9	2.00 ± 1.91	2.14	16
	2. 평소보다 수면시간이 줄었다.	1.95 ± 1.15	1.75	26	2.26 ± 1.37	1.94	23	1.86 ± 1.18	1.83	24	1.83 ± 1.46	1.96	20
	3.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1.90 ± 1.20	1.70	27	2.02 ± 1.26	1.73	31	1.64 ± 1.12	1.62	30	1.76 ± 1.36	1.89	24
	4. 깊은 잠을 못 잤다.	2.17 ± 1.31	1.94	21	2.14 ± 1.31	1.84	29	1.95 ± 1.15	1.93	19	1.81 ± 1.35	1.94	22
식욕	5.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3.17 ± 2.28	2.83	9	2.26 ± 1.81	1.94	23	1.88 ± 1.82	1.86	21	1.36 ± 0.67	1.45	35
	6.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었다.	2.55 ± 1.24	2.28	13	1.83 ± 1.04	1.57	36	1.67 ± 1.30	1.64	29	1.40 ± 0.68	1.50	34
양	7. 상복부가 더부룩하거나 답답하였다.	2.31 ± 1.73	2.07	20	1.69 ± 0.80	1.45	40	1.64 ± 0.76	1.62	30	1.95 ± 1.30	2.09	18
	8. 속쓰림이 있었다.	2.36 ± 1.70	2.11	17	1.88 ± 1.06	1.61	34	1.50 ± 0.82	1.48	38	1.53 ± 0.83	1.63	31
소화	9.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움이 있었다.	2.86 ± 1.79	2.56	11	2.81 ± 2.04	2.41	11	2.24 ± 1.22	2.21	15	2.90 ± 2.14	3.11	4
	10. 구토가 있었다.	3.74 ± 2.42	3.34	4	3.52 ± 2.16	3.02	2	2.55 ± 1.75	2.51	7	4.14 ± 2.71	4.44	2
상태	11. 상복부에 통증이 있었다.	3.43 ± 2.27	3.07	6	2.38 ± 1.68	2.04	21	2.02 ± 1.23	2.00	17	2.55 ± 1.66	2.73	9
	12. 명치가 문쳐 단단하였다.	3.48 ± 2.48	3.11	5	2.57 ± 1.65	2.20	15	2.17 ± 1.15	2.14	16	2.93 ± 1.72	3.14	3
구강	13. 입마름이 있었다.	1.55 ± 1.13	1.38	36	1.21 ± 0.83	1.04	52	1.45 ± 1.04	1.43	42	1.14 ± 0.82	1.22	39
	14. 갈증이 나지만 물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다.	1.38 ± 1.14	1.24	41	1.45 ± 1.60	1.24	48	1.24 ± 1.02	1.22	50	1.14 ± 0.87	1.22	39
진조	15.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셨다.	1.26 ± 1.12	1.13	44	1.81 ± 1.81	1.55	37	1.48 ± 1.76	1.46	40	1.00 ± 0.74	1.07	48
	16.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해졌다.	2.33 ± 1.38	2.08	19	2.58 ± 1.73	2.21	14	2.33 ± 1.82	2.30	12	1.98 ± 1.36	2.11	17
감	17. 대변을 매일 보지 못했다.	0.52 ± 0.46	0.47	53	3.14 ± 1.96	2.69	4	1.38 ± 0.85	1.36	46	0.90 ± 1.01	0.97	51
	18. 대변을 하루에 여러 번 봤다.	2.05 ± 1.26	1.83	24	1.69 ± 1.34	1.45	40	1.24 ± 0.90	1.22	50	1.05 ± 0.76	1.12	47
대변	19. 대변이 굳었다(딱딱하다).	0.88 ± 0.52	0.79	52	2.40 ± 1.24	2.06	19	1.29 ± 0.54	1.27	49	0.98 ± 0.84	1.05	49
	20. 대변이 무르거나 물 같은 변을 봤다.	2.48 ± 2.16	2.21	15	2.40 ± 1.85	2.06	19	1.36 ± 0.59	1.34	48	1.12 ± 0.61	1.20	43
대변	21. 대변 횟수나 성상이 불규칙했다.	1.48 ± 1.01	1.32	40	2.19 ± 1.28	1.88	27	1.40 ± 0.86	1.39	44	1.14 ± 0.65	1.22	39
	22. 배가 자주 아팠다.	2.17 ± 1.59	1.94	21	2.95 ± 2.01	2.53	5	2.31 ± 1.71	2.28	14	1.93 ± 1.61	2.06	19
대변	23. 배가 가스가 많이 차다(복부팽만감).	1.88 ± 1.16	1.68	29	2.05 ± 1.20	1.76	30	1.98 ± 1.77	1.95	18	1.31 ± 0.84	1.40	36
	24. 대변을 볼 때 힘이 들었다.	1.14 ± 0.67	1.02	47	2.81 ± 2.06	2.41	11	1.76 ± 1.55	1.74	26	1.14 ± 0.62	1.22	39
25. 대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을 느꼈다.	1.21 ± 0.62	1.09	46	2.45 ± 1.75	2.10	17	1.86 ± 1.73	1.83	24	1.10 ± 0.58	1.17	45	

영역	Standard items	Soecumin				Soyangin				Taecumin				Taeyangin			
		Mean±SD	W [*]	R [†]	R	Mean±SD	W	R	R	Mean±SD	W	R	R	Mean±SD	W	R	
소변	26. 소변을 자주 봤다.	0.90 ± 0.54	0.81	51	1.21 ± 1.08	1.04	52	1.62 ± 1.18	1.60	32	0.33 ± 0.62	0.36	53				
	27.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적었다.	1.76 ± 1.39	1.58	32	2.19 ± 1.78	1.88	27	1.93 ± 1.42	1.90	20	2.83 ± 2.53	3.03	6				
	28.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많았다.	1.57 ± 1.81	1.41	35	1.48 ± 1.22	1.27	47	2.55 ± 2.33	2.51	7	0.36 ± 0.39	0.38	52				
	29.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	2.12 ± 1.21	1.90	23	2.43 ± 1.08	2.08	18	2.33 ± 1.68	2.30	12	4.19 ± 2.66	4.49	1				
	30. 소변색이 진했다.	1.50 ± 1.82	1.34	39	1.64 ± 1.16	1.41	43	1.43 ± 1.00	1.41	43	2.14 ± 1.82	2.29	13				
	31. 소변을 참기 어려웠다.	1.07 ± 0.60	0.96	49	1.57 ± 1.19	1.35	44	1.48 ± 0.86	1.46	40	1.24 ± 0.96	1.33	38				
	32.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시원하지 않았다.	1.13 ± 1.65	1.01	48	1.69 ± 0.98	1.45	40	1.53 ± 0.85	1.50	37	2.02 ± 1.76	2.17	14				
	33. 덩거나 운동할 하지 않아도 식은땀이 났다.	4.57 ± 2.11	4.09	1	2.38 ± 1.12	2.04	21	1.69 ± 1.62	1.67	28	1.57 ± 1.00	1.68	30				
	34. 자는 동안 식은땀이 났다.	4.40 ± 2.54	3.94	2	3.60 ± 2.49	3.08	1	1.88 ± 1.35	1.86	21	1.74 ± 1.10	1.86	26				
	35. 머리와 얼굴로 열이 올랐다.	1.29 ± 0.82	1.15	43	1.71 ± 1.12	1.47	39	1.15 ± 0.67	1.13	53	1.48 ± 1.04	1.58	33				
	36. 온몸에 한기를 느꼈다.	2.55 ± 1.75	2.28	13	2.24 ± 1.75	1.92	26	1.60 ± 0.77	1.57	35	1.50 ± 0.87	1.61	32				
	37. 오후나 야간에 열감을 느꼈다.	1.55 ± 0.95	1.38	36	3.19 ± 2.25	2.73	3	1.62 ± 1.11	1.60	32	1.74 ± 1.10	1.86	26				
	38. 손발이 차다.	1.79 ± 1.26	1.60	31	1.40 ± 1.00	1.20	49	1.17 ± 0.60	1.15	52	0.98 ± 0.60	1.05	49				
	39. 손발이 저렸다.	1.60 ± 1.14	1.43	34	1.24 ± 0.66	1.06	51	1.62 ± 1.01	1.60	32	1.07 ± 0.91	1.15	46				
	40. 피부가 가려웠다.	0.98 ± 0.51	0.87	50	1.33 ± 0.64	1.14	50	1.38 ± 0.85	1.36	46	1.12 ± 0.84	1.20	43				
	41.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겼다.	1.36 ± 0.85	1.21	42	1.88 ± 1.06	1.61	34	1.88 ± 1.19	1.86	21	1.60 ± 1.02	1.71	28				
	42. 이유없이 가슴이 답답했다.	2.05 ± 1.65	1.83	24	2.90 ± 2.40	2.49	8	2.48 ± 1.80	2.44	10	2.29 ± 1.64	2.45	11				
	43. 이유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2.38 ± 1.77	2.13	16	2.02 ± 1.13	1.73	31	3.50 ± 1.64	3.45	2	1.81 ± 1.07	1.94	22				
	44. 숨이 차다.	2.98 ± 2.00	2.66	10	2.55 ± 1.66	2.18	16	3.52 ± 1.86	3.48	1	2.36 ± 2.10	2.52	10				
	45. 두통이 있었다.	1.52 ± 1.15	1.36	38	2.26 ± 1.83	1.94	23	1.71 ± 1.25	1.69	27	1.76 ± 1.15	1.89	24				
	46. 어지러웠다.	1.90 ± 1.20	1.70	27	2.02 ± 1.13	1.73	31	2.48 ± 1.43	2.44	10	2.02 ± 1.17	2.17	14				
	47. 몸이 부었다.	2.71 ± 2.03	2.43	12	2.95 ± 1.60	2.53	5	3.26 ± 1.66	3.22	3	2.24 ± 1.75	2.40	12				
	48. 쥐가 났다.	1.26 ± 0.85	1.13	44	1.57 ± 1.02	1.35	44	1.40 ± 0.92	1.39	44	1.60 ± 1.20	1.71	28				
	49. 입안이 험했다(구내염).	1.81 ± 1.20	1.62	30	1.76 ± 0.70	1.51	38	1.50 ± 0.77	1.48	38	1.29 ± 0.77	1.38	37				
	50. 목에 이물감이 있었다.	1.71 ± 0.94	1.53	33	1.52 ± 1.01	1.31	46	1.60 ± 1.12	1.57	35	1.83 ± 1.34	1.96	20				
	51. 불안했다 (불안감)	3.19 ± 1.97	2.85	8	2.90 ± 1.81	2.49	8	2.71 ± 2.10	2.68	5	2.74 ± 2.17	2.93	7				
	52. 우울했다 (우울감)	2.33 ± 1.15	2.09	18	2.86 ± 1.77	2.45	10	2.67 ± 2.06	2.63	6	2.60 ± 2.19	2.78	8				
	53.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다.	3.40 ± 2.21	3.05	7	2.67 ± 1.11	2.29	13	3.00 ± 1.97	2.96	4	2.88 ± 1.67	3.08	5				

*W: Weight; † R: Rank

Table 3. Red Flag Signs for Each of the Four Constitutions

Domain	Standard items	Number of respondents (N=10)			
		Socumin	Soyangin	Taeumin	Taeyangin
체증	1. 체중이 감소하였다.	6	5	6	4
	2. 평소보다 수면시간이 줄었다.	1	1	1	3
	3.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2	2	1	2
	4. 깊은 잠을 못 잤다.	2	2	1	2
식욕	5.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4	1	2	0
	6.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었다.	3	1	2	0
식사양	7. 상복부가 더 부룩하거나 답답하였다.	1	0	1	0
	8. 속쓰림이 있었다.	1	0	1	0
	9.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움이 있었다.	2	3	2	3
	10. 구토가 있었다.	3	5	2	9
소화 상태	11. 상복부에 통증이 있었다.	3	0	2	2
	12. 명치가 몽쳐 단단하였다.	3	1	1	3
	13. 입마름이 있었다.	1	2	2	0
	14. 갈증이 나지만 물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다.	2	1	1	1
구강진조감	15.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셨다.	0	0	1	0
	16.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해졌다.	4	1	1	1
	17. 대변을 매일 보지 못했다.	0	5	1	0
	18. 대변을 하루에 여러 번 봤다.	1	2	1	1
대변	19. 대변이 굳었다(딱딱하다).	0	3	1	0
	20. 대변이 무르거나 물 같은 변을 봤다.	4	1	1	0
	21. 대변 횡수나 성상이 불규칙했다.	0	1	2	0
	22. 배가 자주 아팠다.	0	1	0	0
소변	23. 배가 가스가 많이 차다(부팽만감).	0	1	2	0
	24. 대변을 볼 때 힘이 들었다.	0	4	2	0
	25. 대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을 느꼈다.	0	1	1	0
	26. 소변을 자주 봤다.	0	0	1	0

Domain	Standard items	Number of respondents (N=10)			
		Socumin	Soyangin	Taeamin	Taeyangin
한출	27.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적었다.	2	0	2	1
	28.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많았다.	0	0	4	0
	29.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	1	2	3	7
	30. 소변색이 진했다.	1	1	2	1
	31. 소변을 참기 어려웠다.	0	1	1	0
	32.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시원하지 않았다.	0	1	1	2
	33. 덥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은땀이 났다.	8	1	1	0
	34. 자는 동안 식은땀이 났다.	7	3	2	0
	35. 머리와 얼굴로 열이 올랐다.	0	2	1	0
	36. 온몸에 한기를 느꼈다.	2	2	1	0
	37. 오후나 야간에 열감을 느꼈다.	0	3	0	0
	38. 손발이 찼다.	1	0	0	0
	39. 손발이 저렸다.	1	1	1	0
	40. 피부가 가려웠다.	0	0	0	0
	41.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겼다.	0	0	0	0
	42. 이유없이 가슴이 답답했다.	3	4	3	3
	43. 이유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3	2	8	1
	44. 숨이 찼다	4	0	7	1
	45. 무통이 있었다.	1	0	0	0
	46. 어지러웠다.	1	1	0	0
	47. 몸이 부었다.	4	4	4	1
	48. 귀가 났다.	0	0	0	0
	49. 입안이 험었다(구내염).	0	1	0	0
	50. 목에 이물감이 있었다.	0	0	0	0
	51. 불안했다 (불안감)	5	3	3	2
	52. 우울했다 (우울감)	2	3	4	1
	53.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다.	2	1	4	3
	기타				

3)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

추가가 필요한 증상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소음인에서는 ‘아랫배가 쉽게 뭉치며, 팽만감을 느낀다.’, ‘입 안이 텅텅하여 불쾌하다.’, ‘손발은 싸늘하게 차면서도, 머리와 얼굴로는 상열감을 느낀다.’ 라는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소양인에서는 ‘귀가 먹먹하다.’,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답답하다.’, ‘시원하지 못한 무른 대변을 소량씩 자주 본다.’, ‘토혈이나 각혈이 있다.’, ‘입이 쓰다.’ 라는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태음인에서는 ‘다리가 무거워 힘이 없다고 느낀다.’, ‘땀이 날 환경(운동, 사우나 등)에서 땀이 나지 않는다.’ 라는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태양인에서는 ‘다리에 힘이 없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다리가 풀린 것 같아 걸을 수 없었다.’, ‘매사에 조금하다.’, ‘입안에 맑은 침이나 거품이 자주 고인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라는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IV. 考察 및 結論

2006년 미국합림원(NASEM)은 <암환자에서 암생존자로(From Cancer Patient to Cancer Survivor)>라는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암 치료’에서 ‘치료 후 관리’로의 전환(the transition from active cancer treatment to after-treatment care)이라는 주제를 환기시켰다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으며,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16-2020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71.5%에 달했다. 이에 2017년부터 암 진단 후 주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를 마친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 암생존자통합지지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건강결과(health outcome)¹⁶⁾를 측정할 때 의료 제공자가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측정된 결과를 환자보고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이하 PRO)라고 하고, 크게 증상, 기능,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 행태 등을 측정한다. 환자보고결과측정(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ment, 이하 PROM)은 RRO를 측정하는 도구에 관한 개념으로¹⁷⁾, 일반(generic) PROM으로는 The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SF-36), EuroQol-5D(EQ-5D) 등이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특정 질병(disease-specific) PROM으로는 고·슬관절치환술에 사용하는 Harris Hip Score(HHS),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Arthritis Index(WOMAC), Knee disabilit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Physical Function Shortform(KOOS-PS), 유방암에 사용하는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score(ECOG),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 Core Questionnaire(EORTC QLQ-C30) 등이 다빈도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14}. 이에 사상체질의학 관점에서의(Sasang constitutional-based) 환자보고 결과측정도구 개발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는 건강수준을 편소지장의 기운을 기준으로 건강인 4단계(第一截 神仙, 第二截 淸朗, 第三截 快輕, 第四截 康寧)와 질병인 4단계(第五截 外感, 第六截 內傷, 第七截 牢獄, 第八截 危傾)를 구분하여 명맥실수(命脈實數)라는 소위 ‘건강수준에 대한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⁶.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각 체질별 건강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보명지주(保命之主)의 확보 수준을 기준으로 사상체질 병증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東醫壽世保元·辛

16) result of a medical condition that directly affects the length or quality of a person's life (Public Health Key Terms, CDC)

17) 메스꺼움, 피로, 불면, 우울, 통증 등과 같은 증상 PRO를 측정하는 PROM으로 BDI, HADS, McGill Pain Questionnaire 등이 있고, 신체적 기능, 정신적 기능, 인지적 기능 등과 같은 기능 PRO를 측정하는 PROM으로 HAQ, DLQI, CDLQI 등이 있고, 증상, 기능, 삶의 만족 등을 포괄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 PRO를 측정하는 SF-36 등이 있다.

丑本』에 이르러서는 병증분류 뿐만 아니라 그에 대처하는 약리도 완성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2015년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사상체질병증의 표준증후가 도출되었고, 건강수준 즉 보명지주의 유지 보전 정도를 어떤 지표문항들을 통해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소증진단평가지표와 병증진단평가지표에 대한 표준화 작업까지 이루어졌다^{7,11}.

이러한 배경에서 암생존자의 건강 수준을 사상체질병증이라는 관점을 통해 환자보고식으로 평가하고 점수화하고 이미 확립된 약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암생존자의 위험도 관리(risk reduction and cancer prevention)에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암생존자 등 중증 질환에 대한 1차 양방치료를 겪고 난 환자를 대상으로 체질별 건강수준¹⁸⁾을 평가할 수 있는 ‘사상체질건강수준 평가설문지(SSH-Q)’에 활용할 평가기준을 개발하게 되었다. 연구자회의와 1차 전문가그룹 자문 결과 향후 ‘사상체질 건강수준 평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58개 문항의 핵심 세트(core set)가 확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암생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체질 건강수준 평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53개 문항을 선정한 후, 중요도 평가를 위한 2차 전문가그룹 자문을 실시했다. 상기 53개 문항은 체질 공통 문항이고, 중요도 평가를 통해 사상체질별로 각각 53개 문항간의 가중치가 계산되었다.

소음인은 역증 지표인 자한출(自汗出)¹⁹⁾과 관련된 ‘땀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은땀이 났다.’, ‘자는 동안 식은땀이 났다.’ 항목이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고, ‘체중이 감소하였다.(3위)’, ‘구토가 있었다.(4위)’, ‘명치가 멍쳐 단단하였다.(5위)’는 암생존자라는 특수성에 기반해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 다만 리병 역증 지표인 수족궤냉(手足厥冷)²⁰⁾, 구중불화(口中

不和)²¹⁾ 등이 체질 공통 문항에 구현되지 않아 ‘입 안이 텅텅하여 불쾌하다.’, ‘손발은 싸늘하게 차면서도, 머리와 얼굴로는 상열감을 느낀다.’라는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소양인은 역증 지표²²⁾인 ‘자는 동안 식은땀이 났다.’, ‘오후나 야간에 열감을 느꼈다.’가 각각 1위, 3위로 나타났고, 2위는 배한이구(背寒而嘔)²³⁾ 개념이 반영된 ‘구토가 있었다.’ 항목이었다. 소양인의 병세를 살피는 데 중요한 지표로 제시된 대변상태²⁴⁾가 반영된 ‘대변을 매일 보지 못했다.’와 역증의 형증(形證)²⁵⁾ 개념이 반영된 ‘체중이 감소하였다.’ 항목이 각각 4위, 5위로 나타났는데, 두 항목은 소양인체질의 고위험 증상에서는 모두 1위에 해당되었다. 다만, 표병 역증의 망음병(亡陰病) 설사가 공통 문항에 없어 ‘시원하지 못한 무른 대변을 소량씩 자주 본다.’라는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태음인은 역증 지표인 기단(氣短)²⁶⁾과 관련된 ‘숨이 찼다.’,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다가 각각 1위와 4위로, 정충(怔忡)과 관련된 ‘이유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했다.’가 각각 2위와 5위로 나타났다. 십병구사(十病九死)라는 표현²⁷⁾이 제시된 부종(浮腫)과 관련하여 ‘몸이 부었다.’가 3위로 나타났다. 태음인 체질의 고위험 증상으로는 위증(危證)의 형증(形證)²⁸⁾

或下利清水 謔語便閉 宜小承氣湯 脣青 四肢厥冷 指甲青黑 宜薑附湯.”

18) 엄밀히는 사상체질병증 관점에서의 중증도(severity)라고 할 수 있고, PRO의 종류로 언급되는 증상, 기능,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행동 4가지 영역의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35> “蓋鬱狂證 都是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身熱 自汗出也.”
 20)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7-34> “李挺曰 舌乾口燥

21)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36> “陰證 口中和 而有腹痛泄瀉者 太陰病也 口中不和 而有腹痛泄瀉者 少陰病也.”
 22)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10-26> “龔信曰 凡陰虛證 每日午後 惡寒發熱 至晚 亦得微汗而解 誤作瘧治 多致不救.”
 23)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10-25> “東醫醫方類聚曰 夫渴者 數飲水 其人 必頭眩眩 背寒而嘔 因虛故也.”
 24)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10-15> “少陽人 表裏病 結解 必觀於大便...”
 25)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10-13> “熱伏於下 腿膝枯細 骨節痠疼 飲水不多 隨即尿下 小便多而濁 病屬下焦.”
 26)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12-10> “嘗治 太陰人 胃脘寒證 癩瘋 有一太陰人 素有怔忡 無汗 氣短 咳嗽矣.”
 27)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13-36> “凡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 治之則 十病九死也.”
 28)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13-26> “危亦林曰 陰血

과 관련된 ‘체중이 감소하였다.’가 3위, 음일수이(飲一溲二)²⁹⁾와 관련된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많았다.’가 4위로 응답되었는데, 이 문항들은 중요도에서는 각각 9위 8위로 나타났다.

태양인은 완실무병³⁰⁾ 지표인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가 1위로 응답되었고, 열격(噎膈)이 반영된 ‘구토가 있었다.’,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움이 있었다.’가 각각 2위와 4위로, 구미하과(鳩尾下塊)³¹⁾에 해당되는 ‘명치가 뭉쳐 단단하였다.’가 3위, 해역(解佚)이 반영된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다.’가 4위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로 가중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응답 일치도(reliability)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³²⁾. 즉, 기존 연구들에서는 평가자간(inter-rater) 응답의 분산을 보정하기 위해 각 항목별 평균값을 각 항목별 표준편차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⁷⁻¹⁰. 만약 특정 질병 진단과 같은 평가자간 일치도가 중요한 연구라면 여러 회차의 델파이를 진행하면서 응답일치도(reliability)를 확보할 수도 있겠으나, 민감도(sensitivity)가 더 중요한 스크리닝 검사의 항목 개발이라면 전문가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이를 통해 더 널리 수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전문 지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평균점수를 중요도의 기준으로 삼아 가중치를 산출하였고, 설문지의 각 응답점수에 가중치를 반영한 최종 합산점수(Score)를 계산하여 각 체질별 건강 수준에 대한 점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³³⁾.

고위험증상(Red flag sign)에 대한 응답은 자문단 23명 중 총 10명만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체질 병증의 관점에서의 개별 항목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과 개별 항목이 암의 고위험증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평가 대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응답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⁴⁾.

이번 연구는 각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 <암생존자 대상 사상체질건강수준 평가설문지(SSH-Q)>의 초안(draft)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타당도(validity), 신뢰도(reliability), 반응도(responsiveness)가 검증되어 암생존자의 건강 상태의 수준과 변화를 객관적이고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도구로서 한의진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확보한 <사상체질 건강수준 평가>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58개 문항의 핵심 세트(core set)가 추후 연구를 통해 표준 세트(standard set)로 확정되고, 사상체질의학 관점에서의(Sasang constitutional-based) 환자 보고결과측정도구(PROM)가 개발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V.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 HI23C1359).

VI. References

1. Cancer Registry Statistics. Number of cancer cases, relative frequencies, crude incidence rates, and 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s for 61 cancers/

耗竭 耳聾目暗 脚弱腰痛 宜用黑元丹.”

29)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13-24> “蓋燥熱 至於飲一溲二 而病劇則難治.”

30) 『四象人辨證論』 <17-16> “太陽人 小便旺多 則完實而無病.”

31) 『太陽人內膈小腸病論』 <15-11> “鳩尾下 不宜有塊 塊小則病輕 而其塊 易消 塊大則病重 而其塊 難消.”

32) 응답일치도는 Kendall's W로 계산하였고, 소음인 체질의 응답일치도는 0.39, 소양인은 0.22, 태음인은 0.21, 태양인은 0.34로 나타났다.

$$33) S = \frac{\sum_{i=1}^{53} (W_i \times A_i)}{4}$$

S : 설문지 점수 (score)

W_i : 각 문항의 가중치

A_i : 각 문항의 응답 점수

- 34) 사상체질병증 관점에서의 중증도는 PRO 측정의 신규 평가 영역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gender (Years 1999-2020)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kosis.kr/> [Accessed Dec. 10, 2023].
2. Cancer in statistics. Cancer prevalence. Cancer survival rates.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cancer.go.kr/> [Accessed Dec. 10, 2023].
 3. National Cancer Institute. Office of Cancer Survivorship.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cancercontrol.cancer.gov/ocs/definitions> [Accessed Dec. 10, 2023].
 4. National Research Council. From Cancer Patient to Cancer Survivor: Lost in Transi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6.
 5. Rodriguez MA, Foxhall LE. Handbook of Cancer Survivorship Care. 1st ed. New York: Demos Medical. 2018:5-6.
 6. Lee JM (translation with notes by Park SS). Dong-yiseowon Sasang Chobongwon. 1st ed. Kyunggi-do: Jipmundang. 2005:171-5. (Korean)
 7. Hwang SB, Lee J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is and Assessment Index by Soeumin's Ordinary Symptoms. *J Sasang Constitut Med.* 2021; 33(1):38-56. (Korean) doi: 10.7730/JSCM.2021.33.1.38
 8. Cho Y, Lee J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Index for the Ordinary Symptom of Soyangin. *J Sasang Constitut Med.* 2010;32(4): 45-64. (Korean) doi: 10.7730/JSCM.2020.32.4.45
 9. Kwon JH, Lee JH.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is and Assessment Instrument for the Original Symptom of Taeumin. *J Sasang Constitut Med.* 2021;33(1):57-89. (Korean) doi: 10.7730/JSCM.2021.33.1.57
 10. Lee HR, Lee J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Tools for Sasang Constitutional Patterns. *J Sasang Constitut Med.* 2021;33(3): 95-126. (Korean) doi: 10.7730/JSCM.2021.33.3.95
 11.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Standar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asang(Four) constitutional medicine patterns.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2022. (Korean)
 12.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Standard Clinical Pathway for Sasang (Four) constitutional medicine patterns.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2021. (Korean)
 13. Ahn BR, Jeong DW, Park SJ.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Wonju: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3:14-16, 34-40. (Korean)
 14. Weldring T, Smith SM. Patient-Reported Outcomes (PROs) and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PROMs). *Health Serv Insights.* 2013;6:61-8. doi: 10.4137/HSI.S11093.

Appendix 1. Sasang Constitutional Health Level Assessment Questionnaire(SSH-Q) (Draft)

Domain	Standard items	전혀 없었다. (0)	가끔 있었다. (1)	자주 있었다. (2)	매우 자주 있었다. (3)	계속 있었다. (4)	가중치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체중	1. 체중이 감소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1% 이내	<input type="checkbox"/> 2-3%	<input type="checkbox"/> 4-5%	<input type="checkbox"/> 5% 이상	3.75	2.53	2.49	2.14
	2. 평소보다 수면시간이 줄었다.						1.75	1.94	1.83	1.96
수면	3.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1.70	1.73	1.62	1.89
	4. 깊은 잠을 못 잤다.						1.94	1.84	1.93	1.94
식욕	5.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2.83	1.94	1.86	1.45
식사양	6.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었다.						2.28	1.57	1.64	1.50
	7. 상복부가 더부룩하거나 답답하였다.						2.07	1.45	1.62	2.09
소화 상태	8. 속쓰림이 있었다.						2.11	1.61	1.48	1.63
	9.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움이 있었다.						2.56	2.41	2.21	3.11
구강 건조 감	10. 구토가 있었다.						3.34	3.02	2.51	4.44
	11. 상복부에 통증이 있었다.						3.07	2.04	2.00	2.73
대변	12. 명치가 뭉쳐 단단하였다.						3.11	2.20	2.14	3.14
	13. 입마름이 있었다.						1.38	1.04	1.43	1.22
대변	14. 갈증이 나지만 물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다.						1.24	1.24	1.22	1.22
	15.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셨다.						1.13	1.55	1.46	1.07
대변	16.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해졌다.						2.08	2.21	2.30	2.11
	17. 대변을 매일 보지 못했다.	<input type="checkbox"/> 하루에 1회	<input type="checkbox"/> 2-3일에 1회	<input type="checkbox"/> 4일에 1회 이하			0.47	2.69	1.36	0.97
대변	18. 대변을 하루에 여러 번 봤다.	<input type="checkbox"/> 하루에 1회	<input type="checkbox"/> 하루에 2-3회	<input type="checkbox"/> 하루에 4회 이상			1.83	1.45	1.22	1.12
	19. 대변이 굳었다(딱딱하다).						0.79	2.06	1.27	1.05
대변	20. 대변이 무르거나 물 같은 변을 봤다.						2.21	2.06	1.34	1.20
	21. 대변 횟수나 성상이 불규칙했다.						1.32	1.88	1.39	1.22
대변	22. 배가 자주 아팠다.						1.94	2.53	2.28	2.06
	23. 배가 가스가 많이 찼다(복부팽만감).						1.68	1.76	1.95	1.40
대변	24. 대변을 볼 때 힘이 들었다.						1.02	2.41	1.74	1.22
	25. 대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을 느꼈다.						1.09	2.10	1.83	1.17
소변	26. 소변을 자주 봤다.						0.81	1.04	1.60	0.36
	27.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적었다.						1.58	1.88	1.90	3.03
소변	28. 물 마신 양에 비해 소변량이 많았다.						1.41	1.27	2.51	0.38
	29.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						1.90	2.08	2.30	4.49
소변	30. 소변색이 진했다.						1.34	1.41	1.41	2.29
	31. 소변을 참기 어려웠다.						0.96	1.35	1.46	1.33
한출	32.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시원하지 않았다.						1.01	1.45	1.50	2.17
	33. 덥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은땀이 났다.						4.09	2.04	1.67	1.68
한출	34. 자는 동안 식은땀이 났다.						3.94	3.08	1.86	1.86

Domain	Standard items	전혀 없었다. (0)	가끔 있었다. (1)	자주 있었다. (2)	매우 자주 있었다. (3)	계속 있었다. (4)	가중치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35. 머리와 얼굴로 열이 올랐다.						1.15	1.47	1.13	1.58
	36. 온몸에 한기를 느꼈다.						2.28	1.92	1.57	1.61
	37. 오후나 야간에 열감을 느꼈다.						1.38	2.73	1.60	1.86
	38. 손발이 찻다.						1.60	1.20	1.15	1.05
	39. 손발이 저렸다.						1.43	1.06	1.60	1.15
	40. 피부가 가려웠다.						0.87	1.14	1.36	1.20
	41.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겼다.						1.21	1.61	1.86	1.71
	42. 이유없이 가슴이 답답했다.						1.83	2.49	2.44	2.45
	43. 이유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2.13	1.73	3.45	1.94
	44. 숨이 찻다						2.66	2.18	3.48	2.52
기타	45. 두통이 있었다.						1.36	1.94	1.69	1.89
	46. 어지러웠다.						1.70	1.73	2.44	2.17
	47. 몸이 부었다.						2.43	2.53	3.22	2.40
	48. 쥐가 났다.						1.13	1.35	1.39	1.71
	49. 입안이 험었다(구내염).						1.62	1.51	1.48	1.38
	50. 목에 이물감이 있었다.						1.53	1.31	1.57	1.96
	51. 불안했다 (불안감)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이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항상) 그랬다	2.85	2.49	2.68	2.93
	52. 우울했다 (우울감)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이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항상) 그랬다	2.09	2.45	2.63	2.78
	53.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다.	NRS 0-2	NRS 3-4	NRS 5-6	NRS 7-9	NRS 9-10	3.05	2.29	2.96	3.08